



동신대학교 베트남 해외봉사단 학생들이 비엠허 지역 초등학교에서 벽화그리기 작업을 하고 있다.

<동신대 제공>

■ 동신대학생들의 여름 방학 나기

취업스터디·봉사활동 참여가 대세

여행·알바보다 현장실습·해외봉사·영어사관학교 등 프로그램으로

요즘 대학생들에게 방학이란 자신에 대한 재투자와 리모델링을 위한 시간이다.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사회와 자기 인성을 위해 값진 투자를 하고 있다. 예전에 여행이나 아르바이트가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취업을 위해 스터디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라는 것.

22일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에 따르면 올 여름방학 중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이 개설한 각종 프로그램에 1178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참여해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재학생 6명 중 한명 꼴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셈.

방과후학습 프로그램 ASP(After School Program)인 동신반딧불프로

그램에 21개팀, 456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면학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ASP는 동신대가 학생들의 전공 공부를 위한 기초학습 강화 및 전공 심화, 국가고시나 자격증 시험 대비를 위해 개설한 스터디그룹으로 학생들과 교수가 공부 주제를 정해 그룹을 만들면 대학에서 지도교수비와 학습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 식사비 등 팀당 100만원 이상 썩을 지원해준다.

언어교육원이 개설한 영어사관학교에도 47명이 참여하고 있다. 4주 동안 기숙형으로 진행되는 영어 몰입 교육프로그램으로, 하루 7시간 강의를 비롯해 10시간이 넘는 학습활동을 통해 영어 실력을 집중적으로 키워주고 있다.

링크사업단이 주관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에도 33개 학과 497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과 관련된 업체에서 근무하며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4주 동안 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전공 관련 해외 기업 탐방 프로그램에도 4개학과 8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도교수와 함께 글로벌 기업을 방문해 국제 감각을 익히고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이 직접 조를 짜고 배우고 싶은 주제를 정해 터키, 그리스 등에서 이뤄진 해외 학습연수에도 2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황금 같은 방학을 봉사활동으로 값지게 보내는 학생도 많았다. 드림 투

게터 333캠페인을 통해 감사와 봉사, 독서를 강조하고 있는 동신대는 올 여름방학 중 베트남 해외봉사단을 구성해 비엠허 지역에서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 해외봉사에는 총 40명이 참여해 한방진료, 미용봉사, 문화봉사, 노력봉사 등 전공 특성을 살린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학교에서 개설한 봉사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도 8개학과 33명이 참여해 광주전남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재활센터 등지에서 봉사하며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환기시켰다.

한편 동신대학교는 최근 교육부의 2013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면 사후 받게 될 정부 지원금을 재학생 역량 강화사업에 집중 투자해 올 2학기에는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방침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태권도 우수성 세계에 알린다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11개국 수련생 140명 참가

세계 각국의 태권도 수련생이 모여 기량을 뽐내고 국제적인 화합을 다지는 '2013 조선대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가 지난 21일 개막, 28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에 돌입했다.

조선대(총장 서재홍)가 주최하고 체육대학 태권도학과(학과장 이계행)가 주관하는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는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도시인 광주와 조선대 태권도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조선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열린다.

세계 각국의 태권도 수련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 대회에서 우수한 태권도 챔피언과 고단자들의 지도를 받아 기량 향상은 물론 태권도 정신과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국제적

인 화합의 장으로 꾸며진다. 올해는 필리핀,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페루, 오스트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등 세계 11개국에서 140여명의 수련생과 지도자가 참가한다.

태권도 아카데미는 세계 각국의 태권도 수련생 수준별 급수에 따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겨투기반으로 나눠 중국국의 태권도 품새(기본 동작·유급자 품새·유단자 품새)와 겨투기를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태권도 교육은 김정록 광주태권도협회 명예회장(공인9단), 윤관석 광주태권도협회 회장(공인9단), 김민철 광주태권도협회 부회장(공인9단), 임병영 전남태권도협회 심사분과위원

장(공인9단), 이병석 서영대 외래교수(공인7단), 광병호 광주태권도협회 경기분과위원장(공인7단), 정문자 대한태권도협회 지도자교육 강사(공인7단) 등 외래강사와 조선대학교에서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이계행 교수(공인7단)와 국가대표시범단 감독 정재환 교수(공인7단), 조선대 출신으로 세계대회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최연호 태권도부 감독(공인5단) 등이 맡는다.

윤오남 체육대학장은 "올해 다섯 번째 열리는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는 세계 태권도 수련생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체합의 장"이라며 "조선대 학생들을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해 외국 취업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

유진증권 내일 광주서 학부모 대상 무료 입시 설명회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지점장 서일원)은 24일 오후 3시 광주서 서구 치평동 평화방송국 3층에서 교육전문 애널리스트인 김미연(사진) 연구위원을 초청해 초·중·고 학부모 대상 무료 입시 설명회를 연다.

김 연구위원은 입시분석 자료 '교

육의 정석' 저자이자 교육 전문 애널리스트로 이날 설명회에서 맞춤형 입시 전략을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에서 시작하는 대입전략 ▲선행학습 해야 하나 ▲각종 경시대회 입상 필요함 ▲외고·과학교·자사고 가야 하나 ▲우리



아이 SKY 보내는 4가지 방법 등 학부모 입장에서 입시 해법을 제시한다. 참가 신청과 문의는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062-232-7000)으로 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나의 미래는...' 선·후배와 함께 진로 찾아요

조대여고 '계열탐구 대회' 선배가 후배에게 진로 코치

계열별 스스로 설계 '호응'

광주의 한 여고에서 선·후배들이 함께하는 진로 탐구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교장 김갑진)는 최근 본관 1층 생명과학실에서 1,2학년 학생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 계열탐구 실천대회'(사진)를 열었다.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는 1학년 학생들이 직면한 문·이과 선택 문제를 2학년 선배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교사들이 수학, 과학 잘하는 학생들에게 이과 선택을 권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진로를 고민하는 기회를 부여한 점이 돋보였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대학 학과는 물론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측은 단순 행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연대회 방식을 도입해 학생들에게 심도있는 탐구기회를 열어줬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10개팀은 '계열탐구 실천대회' 1부 행사에서 각 계열(인문·사회·자연·공학·의학·교육·예체능)에 대한 탐구 결과를 발표했다. 2학년 선배들은 자신들의 문·이과 선택 경험을 후배들에게 들려줘 계열 선택에 도움을 줬다.

김갑진 조대여고 교장은 "직업 체험단, 진학캠프 등 진로 탐색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학생들이 스스로 장래를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보건대 봉사단 보건의료 전공 연계 몽골서 교육 나눔

광주보건대학교(총장 김양혁) 해외봉사단은 최근 2주간 몽골에서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작년에 이어 몽골 셀렝계 지역에서 실시됐고, 몽골의 10~18세 학생들을 위한 교육봉사와 보건계열의 전공연계봉사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또한 몽골 대표축제인 나담축제 기간에 셀렝계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연과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통해 민족과 언어를 넘어 현지인들과 서로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고, 봉사단의 활동이 화제가 되어 셀렝계 현지 방송국과의 인터뷰도 진행됐다.

광주보건대학교는 몽골에서의 활동기간동안 1건의 MOU체결과 2개의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광주보건대학교 김경태 국제교류처장은 "이번 몽골봉사활동을 통해 참여학생들은 나눔의 실천이라는 대학사명을 이행했고, 대학은 몽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키우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꿨던 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352-7788, 676-7719,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건물매매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 143평, 건물 480평, 2012년도 신축
- ▶ 5층 건물(1층 82평, 2~5층 100평)
- ▶ 감정가/시세 - 24억원
- ▶ 임대 - 보3억원에 월1,600만원 (임대 중)
- ▶ 대출 - 14억원(이자 월560만원)
- ▶ 매매가 - 24억원
- ▶ 수입 - 7억원 투자에 월 1,040만원
- ▶ 주인 직매함, 010-3605-5000